

## ※ 총평 및 앞으로의 공부방향

### 1. 최신판례를 출제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2020년도 시험에 출제한 대상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문1】 의 1.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문1】 의 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문2】 의 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문2】 의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문3】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기존 판례를 묻는 설문은 없고 최신 판례만을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특이점은 2020.06.11. 선고한 판례도 이번 시험에 출제하였다는 것이며, 2020. 6. 11. 선고한 판례 전문이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시점이 2020년 8월임을 감안하면 3순환 강의때나 접할 수 있는 판례도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2020년도 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도 나타났습니다.

【문1】 의 2는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을 출제하였습니다.

### 2. 학원에서 평소 강조하던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주제어 : 형종상향의 금지, 전문법칙, 임의제출물의 압수, 자백의 보강법칙

위 출제 주제어와 이번에 출제된 쟁점들이며, ① 형종상향의 금지는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에 판례가 나오자마자 출제하였고, ②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제312조 1항과 2항을 제외한 법 제312조 3항과 법 제316조 2항의 전문법칙과 관련된 최신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전문법칙과 관련되어 굳이 최신 판례를 읽지 않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전통적인 쟁점을 담은 문제 3번과 새로운 쟁점을 담은 문제2의 1이 모두 출제되어 전문법칙은 판례가 나오면 무조건 출제된다는 기존의 출제패턴을 그대로 이어서 출제하였으며, ③ 강제수사와 관련되어 학원에서 강조한 최근 판례의 쟁점인 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④ 최신 중요판례에서 강의하였던 전통적인 출제 유력한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이 모든 쟁점들은 모두 학원에서 평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던 부분들입니다.

### 3. 작년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더욱 하향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출제 유력하여 학원에서 강조한 최신판례만을 출제하여 학원강의를 꾸준히 수강한 수강생들은 이번 시험문제가 너무 쉽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다만 학원강의를 듣지 않거나 최신판례를 접하지 않고 기존 판례만을 공부한 수험생들을 쟁점조차 잡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난이도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 질 수밖에 없으며, 학원을 꾸준히 다닌 수험생들이 독학으로 공부한 수험생 보다 이번 시험에서 훨씬 유리하였을 것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 4. 학원이 필수입니다.

그 동안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반드시 최신판례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도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기존 기출되었던 단순절도죄로 유죄확정된 자에 대해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을 때 단순절도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등 기존 기출쟁점을 그대로

출제한 문제 및 최신판례 까지 아울러 출제하였고, 뿐만 아니라 1999년 선고한 판례 뿐만 아니라 2019년도 3월, 6월에 선고한 판례 까지 두루 출제 하였습니다.

즉, 기존 기출문제와 중요한 기존 판례 및 최신판례 까지 모두 섭렵하여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던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무사 시험 출제한 대상판례는 본 강사가 2순환 및 3순환 모의고사에서 모두 출제한 판례들입니다. (3순환 강의시에는 2순환 문제도 모두 다시 나누어 드리고 강의도 다시 하였습니다)

모의고사가 이번 시험에 출제한 쟁점을 100% 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 90% 이상은 담았고, 나머지 10%의 쟁점은 이론 강의를 통해 충분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마 2020년 법무사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를 한 다른 학원의 정규 커리큘럼 강사님들도 이번 시험에 출제된 판례는 모두 수강생들에게 중요하게 강의하였을 것입니다.

최근 법률저널 기사를 보면

응시생 A씨는 형사소송법과 형법이 어려웠다고 평하며 “형소법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형법도(형사소송법의 오기로 보입니다) 양형부당 항소에 관한 문제가 어려웠다.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B씨는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며 다른 응시생들과 다소 다르게 평가했다. 그는 “민법은 소멸시효와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왔는데 법정지상권을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다. 헛갈리는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풀만 했다”고 말했다.

응시생 C씨는 “형법이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 뇌물죄가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라 많은 응시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형소법은 학원에서 찍어준 게 많이 나와서 괜찮았는데, 민법과 민사서류, 등기서류 등은 집행논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런 부분은 써본 적이 거의 없어서 매우 힘들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응시생 D씨는 민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그는 “형법과 형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민법이 문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며 “문제가 너무 많다보니 초안을 잡을 시간도 부족했다. 법행 기출도 나오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시간부족이 문제였다. 소멸시효에 대한 50점짜리 문제는 평이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입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을 축하드리며, 아쉽게도 내년을 준비하셔야하는 분들은 학원의 정규 커리큘럼에 맞게 강의를 수강하시고 모의고사는 절대 빠지지 않고 응시하신다면 꼭 내년 시험에 합격하실거라 장담합니다.